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삶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몸소 체감하고 있다. 언택트의 기본 방침에 따라 가구 단위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학생이나 거실과 방 3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공부, 업무, 휴식, 식사의 모든 생활을 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과의 다른 라이프스타일의 중첩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동반한다. 우리가 흔히 사는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실을 중심으로 벽과 문으로 이루어진 방이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공간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아파트': 언제가부터 우리는 성냥갑처럼 생긴 네모난 건물 안에 모여 살게 되었다. 코로나 이전의 생활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각 가구의 생활 방식에 따라 최대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집'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TV를 보기 위한 가시거리를 확보하는 거실은 그 목적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같은 101동에 거주하더라도 202호와 203호의 내부 공간은 다르게 구성되어 입주 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02호의 내부는 움직이는 벽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2개의 방이 4개의 방이 되기도 해야 하고, 203호의 내부는 복층으로 이루어지고 방이 필요 없는 거주자를 위한 공간이기도 해야 한다.

더불어, 집이라는 공간에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소가 필요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집에 외부 테라스를 소유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차선책도 필요하다. 사실 '테라스'를 만들자는 이야기의 본질은 '손쉽게 자연과 접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을 접하고 싶으면 공원을 가면 되지 않은가, 산책을 나가면 되지 않은가 싶기도 하지만 20분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 공원 보다는 작은 공간이지만 손쉽게 닿을 수 있는 테라스가 더 매력적인 것은 자명하다.

'차선책': 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공원이 집 앞에 있으면 된다. 101동 앞에 공원이 있고 107동 앞에 공원이 있으면, 101동에서 104동의 사람들과 105동에서 109동의 사람들은 적은 인원으로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럼, 대체 어떻게?

가능한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집 앞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문득 '주차장에 작은 공원을 만들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 출퇴근을 위해 차를 타는 사람, 장을 보러 차를 타는 사람, 잠시의 외출을 위해 차를 타는 사람 등이 있었지만 '그냥 주차된 차량'도 많았다. 차량의 이용 빈도를 따져 자주 이용하지 않는 차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산출해내고 그 공간 위로 작은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1층의 반 정도 면적의 2층에는 작은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카 셰어링', '자동화된 교통'의 발달로 앞으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테지만 '주차장의 공원화'는 그 시대적 상황에도 어긋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주차장': 그럼, 주차장은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 것일까. 직장을 갖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을 무렵, 또는 이제 막 돈을 벌어서 꽤 큰 돈을 모았을 무렵 개인이 '차'를 사는 게 당연시되고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 하나의 이유이다. 또 다른 이유는 '물류의 이동'이 많아져 물류를 운반하는 차량이 이동하고 소유할 차도와 주차 공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주차장이 많아진 것은 계속해서 차도가 생기고 넓어지는 이유 와도 일맥상통한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물류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차를 위해 소비되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내가 사는 집은 좁아지고 부족해지는데, 차가 사는 공간은 넓어지고 많아져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현실이다.

'물류' 이동의 증가를 쉽게 택배라고 이야기해보자. 나 자신도 택배를 애용하지만 택배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택배의 이동'과 '나의 이동'은 반대다. 택배가 열심히 나에게로 오는 동안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24시간 택배가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상적인 미래의 상황을 기대하며 상황을 설명하자면,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택배 기사님도 출근을 하고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택배 기사님도 퇴근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자주 한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출퇴근 시간은 지옥철임은 여전히 동일하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지하철은 상황이 다르다. 지하철 운행 간격도 다르고 이용객의 수도 다르다. 바로 이점이다. 지하철이 비는 시간대에 택배가 지하철을 타면 어떨까.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가 한다면, 기차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차는 화물열차도 있고 승객이 탑승하는 열차도 있다. 코로나 시대에 비행기가 승객이 아닌 물류를 싣고 비행한다는 사실은 이미 익숙하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동 트레일러를 따라 물건이 이동하고 지하세계의 다층화로 물건, 교통, 사람의 이동이 구분되는 미래가 서서히 오고 있지만, 과도기적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물류의 이동으로 우리의 생활 공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 공간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환경이 변화하면 생활방식이 바뀌고 그에 따라 건축도 변화한다. 반대로 건축의 양상이 바뀌면 생활방식이 바뀌고 사회적 환경이 변화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는 학교 안 외부 테라스가 넓은 카페이다. 한창 사람이 붐벼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없어 텅 비어 여유롭다.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학교에서 직접 등교해야만 모든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지금 충분히 깨닫고 있다.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몇 학년 몇 반으로 구분된 교실에 모여 앉아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은 ‘배움’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하는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된다. 변화를 하기 싫어하는 교육부 관계자 분들의 반대에 좋은 건축을 담은 학교 공간의 제안이 거절되었다는 것을 안다. 반대의 이유가 다양하다. 지금 있는 학교 건물들을 다시 지을 거냐, 그럼 학생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과정은 어떻게 만족할 것이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건축’이 달라지고 ‘교육’의 목적을 확실히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온라인 학습으로 충분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 배움과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한 배움을 구분하여 생각해보자. 수학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녹화본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방식이 배움의 속도가 다른 학생들에게 더 적합하다. 과학 실험 수업을 할 때는 영상으로 보는 것 보다는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교 건축물의 구조인 ‘ㄱ자 구조’를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 약간의 리뉴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 모든 학생들이 모일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수업 공간은 각자의 배움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선생님은 지금처럼 교무실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위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을 배정받고 아이들의 질문을 들어주고 답해줄 수 있다.

건축이 학교 교육에 해주어야 할 일은 특정한 자리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적당한 수의 개별 부스를 만들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자연과 접하는 운동장에 여러 디자인의 벤치를 설치하여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학교 건물의 구성이 달라지면 언택트 교육을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바람직한 거리가 생길 수 있다. 공공의 기초 교육 기관이 변화하면 대학 교육, 사교육 기관 모두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가 포스트 코로나 현실에 모두 수용된다는 상상을 해보면, 참으로 행복하다. 나의 상상은 정책과 법적 제한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건축 정책이 그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 건축은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규범에 종합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